

# 1419년 영락제가 조선 국왕에게 보낸 그림의 내용과 제작 배경: 북경 천도와 『명칭가곡(名稱歌曲)』 반포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황혜지\*\*

- I. 서론
- II. 영락제가 하사한 그림의 내용
- III. 영락제가 하사한 그림의 제작 맥락
- IV. 조선 왕자의 사행과 영락 연간의 상서 기념 방식
- V. 결론

## I. 서론

조선 世宗(재위 1418~1450) 원년[永樂 17년, 1419] 12월, 북경에 파견되었던 敬寧君(1395~1458) 일행이 귀국하였다. 이들은 세종과 당시 上王이었던 太宗(재위 1401~1418)에게 명의 황제 永樂帝(재위 1403~1424)가 하사한 물품을 전했다. 그것은 麒麟, 獅子, 福祿이라는 “기이한 짐승들[異獸]”과 더불어 隨現寺와 寶塔寺를 그린 軸 그림 다섯 폭이었다.<sup>1</sup> 이 다섯 점의 작품은 現傳하지 않아 각각 어떤 대상을 그린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런데 당시 使行에 참여했던 張子忠(15세기 초 활동)이 쓴 『判書公朝天日記』에는 북경에

\* 이 글은 2024년 제67회 전국역사학대회 미술사부 분과 발표에서 발표한 내용 일부를 수정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과정

1 『世宗實錄』 卷6, 세종 원년 12월 7일(丁丑). “皇帝就賜麒麟、獅子、福祿、隨現寺、寶塔寺、祥瑞之圖五軸.”

서 영락제로부터 경녕군 일행이 이 그림들을 하사받은 정황이 『世宗實錄』보다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주목된다.<sup>2</sup> 영락제는 사신들이 북경에 머무는 동안 세 마리의 동물을 이틀간 직접 구경하게 하였다. 이후 그는 귀국을 앞둔 사신단 일부에게 그림을 준비하는 동안 북경에 계속 머물 것을 명하였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 영락제는 이들에게 세 마리의 동물 그림과 如來가 공중에 顯現한 장면을 그린 그림을 하사하였다.<sup>3</sup>

현대의 미술사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회화 장르의 구분 방식에 따르면 다섯 점의 그림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기린, 사자, 복록을 그린 세 점의 그림은 동물을 주제로 했다는 점에서 翎毛畫에 속한다. 반면에 수현사와 보탑사에서 나타난 佛教的 異蹟을 묘사한 두 점의 그림은 佛教繪畫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조선 조정에서는 이 그림들을 모두 “祥瑞之圖” 곧 祥瑞 현상을 묘사한 繪畫로 이해하였다.<sup>4</sup> 상서는 하늘이 임금의 어진 정치에 감응하였을 때 세상에 나타나는 吉兆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희귀한 동물과 식물, 보기



Fig. 1. 宋 徽宗, 〈瑞鶴圖〉 Huizong (r. 1100-1126), *Auspicious Cranes*, ca. 1112-1126, Handscroll, Ink and Colors on Silk, 51.0×138.2cm (with inscription), Liaoning Provincial Museum (*Liaoningsheng bowuguan*, pl. 95)

2 『世宗實錄』卷6, 세종 원년 11월 27일(丁卯). “又啓, 中國有麒麟、獅子、福祿等異獸, 帝命模畫, 令洪汝方留待, 畫畢齋去.”; 『判書公朝天日記』의 저자 문제는 임준철, 「조선 최초의 북경 使行詩, 張子忠의 『判書公朝天日記』 연구」, 『한국시가연구』 34 (2013), pp. 260-265 참조. 임준철의 연구는 『관서공조천일기』를 종합적으로 다룬 최초의 논문이다. 필자는 1419년 명 궁정에서 조선 사신들이 수행한 활동을 규명하는 데 임준철의 연구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3 張子忠, 『判書公朝天日記』, 「十八日帝坐奉天殿示三獸」; 「十九日被召見猗麟獅子福祿等獸」; 「日暮命授猗麟獅子諸獸如來空觀等圖」. “寵極朝朝謁至尊, 拜辭今日更承恩. 畫成奇獸如騰躍, 描出神人若語言.”

4 『世宗實錄』卷6, 세종 원년 12월 7일(丁丑).

드문 자연 현상 등이 상서로 해석되었다. 통치자의 仁德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상서는 그림으로 제작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서 주제의 회화는 중국에서 한나라 시기부터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5</sup> 그 대표적인 사례가 北宋(960~1127)의 徽宗(재위 1100~1126)이 제작하였다고 알려진 遼寧省博物館 소장의 <瑞鶴圖>이다(Fig. 1).<sup>6</sup>



Fig. 2. 徽宗, <祥龍石圖> Huizong, *Auspicious Dragon Rock*, ca. 1112-1126, Handscroll, Ink and Colors on Silk, 54.0×130.0cm, The Palace Museum, Beijing (The Palace Museum, <https://www.dpm.org.cn/collection/paint/231655.html>)



Fig. 3. 徽宗, <五色鸚鵡圖> Huizong, *The Five Colored Parakeet*, ca. 1112-1126, Handscroll, Ink and Colors on Silk, 53.3×125.1cm, Museum of Fine Arts, Boston (Museum of Fine Arts, Boston, <https://collections.mfa.org/objects/29081/fivecolored-parakeet-on-a-blossoming-apricot->)

5 상서의 개념과 한나라 시기에 나타난 상서 이미지에 관한 연구는 Wu Hung, *The Wu Liang Shrine: The Ideology of Early Chinese Pictorial Ar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9), pp. 73-107 참조.

6 휘종 시대 상서 주제 회화의 제작 전통은 Peter C. Sturman, "Cranes above Kaifeng: The Auspicious Image at the Court of Huizong," *Ars Orientalis* 20 (1990): pp. 33-68 참조.

중국에서 상서를 주제로 한 그림이 고려나 조선 왕실에 알려진 것은 영락 연간이 처음은 아니었다. 그보다 앞서 고려 시대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1116년, 金富軾(1075~1151)이 포 함된 고려 사신단이 휘종의 萬壽節을 축하하기 위해 북송의 수도 開封을 방문했다. 휘종은 이들에게 개봉의 宣和殿에서 여러 회화를 감상하게 하였다.<sup>7</sup> 이 그림들에는 휘종 시대의 상서, 특히 道教적 상서가 묘사된 회화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sup>8</sup> 당시 김부식 일행이 감상한 《太平睿覽圖》 2冊은 《宣和睿覽冊》으로 <서학도>, <祥龍石圖>(北京 故宮博物院 소장), <五色鸚鵡圖>(Museum of Fine Arts, Boston 소장) 등 휘종 시대의 상서 현상을 그린 작품들이 수록된 화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Figs. 1~3).<sup>9</sup> 김부식은 직접 <서학도>를 본 듯이 이 그림들 가운데 “푸른 하늘에 형상[象]이 나타난” 장면이 있었다고 기록하기도 했다.<sup>10</sup>

휘종의 그림들은 김부식이 언급하였듯이 송 황실 내부에서 “비밀스럽게 감상[秘玩]”된 작품이었기 때문에 고려 왕실에 하사되지는 않았다.<sup>11</sup> 실제로 중국 황제가 고려나 조선 사신에게 織物, 가죽, 銀子 등의 답례품이 아닌 繪畫를 공식 예물로 하사한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sup>12</sup>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였을 때 명 초에 영락제가 조선 사신단의 귀국을 늦추면서까지 이 그림들을 반드시 가지고 돌아가도록 요구한 사실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는 다섯 점의 그림을 단순한 의례적인 예물로 해석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렇다면 영락제가 경녕군 일행에게 하사한 그림들은 무엇을 묘사한 것이며, 그는 왜 이를

7 『東文選』에는 휘종이 宣和殿에서 고려 사신들에게 보여준 그림 목록이 남아 있다. 『東文選』 卷35, 「謝宣示太平睿覽圖表」.

8 츠카모토 마로미츠(塚本鷹充)는 당시 김부식이 본 그림 중 다수가 道教적 상서를 그린 그림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塚本鷹充, 「中國·宮廷コレクションと東アジア文化の生成—南宋復興秘閣の成立と江南佛教世界の變容」, 江川濶 外 共編, 『東西中世のさまざまな地平—フランスと日本の交差するまなざし』(東京: 知泉書館, 2020); 이 그림들의 내용에 관한 한국 학계의 연구는 홍선표, 『한국회화통사2: 고려 회화』(한국미술연구소 CAS, 2022), pp. 70-72 참조.

9 《태평예람도》가 《선화예람책》을 가리킬 가능성은 홍선표, 앞의 책, pp. 70-72; 塚本鷹充, 앞의 논문 참조. 스티만은 <서학도>, <상룡석도>, <오색앵무도>가 모두 휘종의 御筆과 함께 유사한 형식과 크기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선화예람책》의 일부였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Sturman, 앞의 논문, p. 36 참조.

10 『東文選』 卷35, 「謝宣示太平睿覽圖表」. “惟是遠人, 厚蒙誤寵, 皇華密命, 交午道塗, 寶翰珍篇, 光輝羈旅, 青天有象”

11 휘종은 大慶殿이나 御書閣과 같은 공적 공간이 아닌 궁궐의 內朝, 즉 황제의 생활 공간 깊숙한 곳에 위치한 선화전으로 문화 활동의 중심지를 옮겼다. 그는 선화전에 각종 고대 예술품과 자신의 詩書畫를 보관하였다. 또한 이 공간을 관료들과 함께 작품을 감상하는 문예 교류의 장으로 활용했다. 선화전은 북송 초부터 書畫를 보관하고 감상하던 공간인 ‘삼관비각(三館秘閣)’의 전통을 이은 장소였다. 塚本鷹充, 앞의 논문 참조.

12 북송 神宗(재위 1067~1085)이 광희의 <秋景煙風> 두 폭을 고려 사신단에 하사하였다는 기록은 郭思, 『林泉高致』, 「畫記」; 홍선표, 앞의 책, p. 66에서 재인용. 원나라의 공주가 시집오면서 고려 왕실에는 원 황실의 회화가 수집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 간의 예물 교환은 아니었다. 명나라 시기에 조선에 하사된 미술품은 김홍대, 「외교와 미술: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대명 외교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美術史論壇』 45 (2017), pp. 79-99. 청 乾隆帝(재위 1736~1795)는 목관화를 하사한 바 있다. 서윤정, 「조선후기 외교 선물로 전해진 청과 서양의 예술과 물질문화: 정조대 후기 사행을 중심으로」, 『미술사학보』 53 (2019), pp. 123-150.

제작하여 조선 국왕에게 전달하도록 했을까?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기존 연구는 영락 연간의 祥瑞를 주제로 한 회화를 靖難의 變으로 즉위한 영락제가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활용한 시각물로 이해해 왔다.<sup>13</sup> 즉 선행 연구는 상서 주제의 회화를 주로 영락제 즉위 이전의 특정 정치적 사건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조선 사신단이 도착하기 직전인 1419년 여름을 전후하여 상서 주제의 회화가 명 궁정에서 집중적으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이러한 작품들이 형성된 실제 역사적 맥락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필자는 영락제가 父親 洪武帝(재위 1368~1398)와 달리 즉위 이후 상서 현상을 회화와 문학 작품을 통해 기념하는 관행을 궁정 내에 정착시켰다는 점에 주목하였다.<sup>14</sup> 이를 바탕으로 영락제가 조선 사신단에 이 그림들을 하사한 배경을 검토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이다.

## II. 영락제가 하사한 그림의 내용

조선 왕실에 선물된 그림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15세기 전반 명에서 제작된 宮廷繪畫와 조선과 명나라 관료들의 文集 및 『세종실록』의 기록을 통해 추정될 수 있다.

### 1. 기린, 사자, 복록의 그림

기린을 그린 그림은 현전하는 영락 연간의 기린 관련 회화들을 통해 그 면모가 짐작된다. 조선 사신단이 영락제의 명으로 이틀 동안 동물들을 관람한 1419년 가을, 阿丹國(오늘날 아라비아 반도 부근)에서 영락제에게 기린을 바쳤다는 기록이 전한다. 당시 翰林學士였던 楊榮(1370~1440)과 金幼孜(1368~1431)는 명에 도착한 기린을 상서로운 徵兆로 칭송하는 시를

13 영락 연간에 제작된 상서 주제의 회화는 Lina Lin, "Gifts of Good Fortune and Praise-Songs for Peace: Images of Auspicious Portents and Panegyrics from the Yongle Period," in *Ming China: Courts and Contacts 1400-1450*, ed. Craig Clunas, Jessica Harrison-Hall, and Y. P. Luk (London: British Museum, 2016), pp. 122-133; 李若晴, 『玉堂遺音: 明初翰苑繪畫的修辭策略』(杭州: 中国美术学院出版社), pp. 40-113; Kathlyn Liscomb, "How the Giraffe Became a Qilin: Intercultural Signification," in *The Zoomorphic Imagination in Chinese Art and Culture*, ed. Jerome Silbergeld and Eugene Y. Wang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6), pp. 341-378 등 참조.

14 李若晴, 앞의 책, pp. 40-113 참조.

남겼다.<sup>15</sup> 양영의 시에는 영락 12년과 영락 13년에 각각 榜葛刺國(오늘날 벵골 지역)과 馬林國(오늘날 케냐 지역)에서 영락제에게 기린을 헌상했다는 내용이 보인다. 선행 연구를 통하여 잘 알려졌듯이 영락 12년에 방갈랄국에서 바친 기린(giraffe)을 영락제는 仁德을 갖춘 전설 속 상서로운 동물 ‘麒麟’으로 해석했다.<sup>16</sup> 현재 타이페이 국립고궁박물관에는 영락 12년에 방갈랄국에서 바친 기린을 묘사한 《明人瑞應圖》와 <麒麟沈度頌>이 소장되어 있다(Figs. 4, 5). 영락제가 조선 사신단에 하사한 기린의 그림은 방갈랄국에서 바친 기린과 유사한 형태로 그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Fig. 4. <麒麟沈度頌> *The Qilin (giraffe) with a Eulogy by Shen Du (1357-1434)*, 1414, Hanging Scroll, Ink and Colors on Silk, 90.4×45.0cm, The National Palace Museum, Taipei (The National Palace Museum Collection, <https://digitalarchive.npm.gov.tw/Collection/Detail/6015?dep=P>)

Fig. 5. 《瑞應圖》중 일부 *Detail of Auspicious Responses*, 15th Century, Handscroll, Ink and Color on Paper, 30.0×686.3cm, Section Portraying a Qilin-giraffe and Three Men from Bengal, The National Palace Museum, Taipei (The National Palace Museum, <https://digitalarchive.npm.gov.tw/Collection/Detail/5654?dep=P>)

15 楊榮, 『文敏集』卷1, 「瑞應麒麟詩」; 金幼孜, 『金文靖集』卷6, 「麒麟贊」.

16 정화의 원정 결과 영락 12년에 방갈랄국에서 바친 기린(giraffe)이 전설상의 동물인 麒麟으로 해석된 현상에 관해서는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하여 주목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 Liscomb, 앞의 논문, pp. 341-378 참조.

사자를 그린 그림은 현재 도쿄국립박물관에 소장된 <獅子圖>와 타이페이 국립고궁박물원에 소장된 <狻猊圖>와 유사한 형식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Figs. 6, 7). 두 작품은 모두 15세기 초 명의 궁정에서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7</sup> 금유자에 따르면 조선 사신들이 북경에 도착하기 직전인 그해 8월, 木骨都束國(오늘날의 모가디슈 지역)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영락제에게 사자를 진헌하였다고 한다.<sup>18</sup>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조선에 하사된 사자 그림은 시기적으로 8월에 목골도속국에서 헌상된 사자를 묘사한 작품으로 생각된다.



Fig. 6. 周全, <獅子圖> Zhou Quan, *The Lion*, 15th Century, Hanging Scroll, Ink and Color on Paper, 123.2×198.4cm, Tokyo National Museum (Tokyo National Museum Database, [https://colbase.nich.go.jp/collection\\_items/tnm/TA-39?locale=zh](https://colbase.nich.go.jp/collection_items/tnm/TA-39?locale=zh))

Fig. 7. 작자미상, <狻猊圖> Anonymous, *The Suanni (lion)*, 15th Century, Hanging Scroll, Ink and Color on Paper, 211.9×178.6cm, The National Palace Museum, Taipei (The National Palace Museum, <https://digitalarchive.npm.gov.tw/Collection/Detail/13649?dep=P>)

마지막으로 세 동물 가운데 정체가 불분명한 福祿은 실물 회화가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얼룩말을 묘사한 그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복록은 그 모습이 당나귀와 유사하지만 목이 길고 흰 바탕에 검은 무늬가 있는 동물이었다고 한다.<sup>19</sup> 금유자 또한 「福祿

17 明初에 궁정에서 제작된 사자 그림들의 편년 문제는 趙晶, 「撒馬兒罕의 禮物: 周全<獅子圖>研究—兼談中國古代獅子圖像中的誤解問題」, 『故宮博物院院刊』 2020年 第11期, pp. 91-106; 賴毓芝, 「《明人畫猿視圖》考」, 『跨界的中國美術史』 (杭州: 浙江大學出版社, 2022), pp. 99-122 참조.

18 金幼孜, 『金文靖集』 卷6, 「獅子贊」.

19 『世宗實錄』 卷6, 세종 원년 12월 7일(丁丑).

獸歌」에서 이와 비슷한 묘사를 남겼으며 북록을 卜刺哇(오늘날의 소말리아 지역)에서 바친 동물로 기록했다.<sup>20</sup> 조선 사신단은 명 조정에서 아무도 이 동물을 아는 이가 없어 영락제가 새롭게 그 이름을 ‘福祿’으로 命名했다고 보고했다.<sup>21</sup> 이때 영락제가 외국에서 바쳐진 이름 모를 동물에 상서로운 의미의 이름을 부여한 행위는 그가 과거 방갈랄국에서 현상된 기린(giraffe)을 전설상의 동물인 ‘麒麟’으로 命名한 사례와 유사하다. 즉 북록의 명칭 또한 이국의 희귀한 동물을 상서로 해석하고자 한 영락제의 의도적 명명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시기 명 궁정에서 제작된 동물 회화는 현실 속 동물의 시각적 특징을 가능한 한 사실적으로 재현하려 한 점이 특징이다. 麒麟과 獅子는 본래 전설에 등장하는 상상의 동물이다. 중국 회화 전통에서 기린은 『三才圖會』나 『山海經』에서 보이듯 일반적으로 용의 머리에 비늘로 덮인 말의 몸을 가진 존재로 묘사되었다.<sup>22</sup> 사자 또한 獬豸와 유사한 형태로 표현되었다. 사자는 명대 이전에 외국에서 중국 황실에 공물로 바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화적 전통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sup>23</sup> 이에 비해 <기린심도송>이나 <산예도> 속의 동물들은 상대적으로 실물 관찰을 바탕으로 한 묘사로 생각된다. 각 그림에서 확인되는 기린(giraffe)과 사자(lion)의 형태는 전통적인 상상 속 모습을 벗어나 실제 동물들의 생태적 특징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적인 묘사 경향은 영락 연간 명 궁정회화의 의도적인 표현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다. 북록 또한 실제로 현상된 얼룩말의 외형을 충실히 반영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묘사 방식은 세 동물이 모두 명의 환관 鄭和(1371~1433)가 수행한 대대적인 해외 遠征의 결과로 획득되었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화의 항해는 영락제의 재위 기간 내내 지속되었으며 명의 해상 세력 확장과 조공 무역 체제의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가운데 제5차 해외 원정은 1417년에 시작되어 조선 사신단이 북경에 도착하기 불과 몇 달 전인 영락 17년(1419) 8월경 마무리되었다.<sup>24</sup> 당시 명의 관료들이 이 동물들을

20 金幼孜, 『金文靖集』卷2, 「福祿獸歌」. “有獸有獸, 名福祿. …… 奇文間錯, 分黑白. 毛質無瑕, 瑩如玉. …… 海南之國卜刺哇, 乃有此獸出大籠.”

21 『世宗實錄』卷6, 세종 원년 12월 7일(丁丑).

22 Liscomb, 앞의 논문, pp. 357-359.

23 중국에서의 사자 그림 전통은 趙鼎, 앞의 논문, pp. 91-106 참조.

24 정화의 다섯 번째 원정은 Louise Levathes, *When China Ruled the Seas: The Treasure Fleet of the Dragon Throne, 1405-1433*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pp. 120-137 참조; 임준철 역시 이 동물들이 정화의 제5차 원정과 관련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임준철, 앞의 논문, pp. 273-278 참조.

상서로 해석한 핵심 근거는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이 동물들이 典據가 없는 존재라는 점이다. 금유자는 1419년에 지은 「長角獸歌」에서 장각수가 “圖說을 살펴보아도 알 수가 없으며 博物志를 찾아 보아도 끝이 없이 막막하다”라고 하였다.<sup>25</sup> 長角獸는 羚羊으로 추정되는 동물이다. 한편 금유자 또한 「駝雞賦」에서 “옛 문헌을 살펴보아도 근거를 찾을 수 없고, 경전과 사서들을 뒤져도 무엇인지 알기 어려웠다”라고 하였다.<sup>26</sup> 즉 기존의 문헌이나 회화적 전통으로 설명될 수 없는 낯설고 새로운 존재임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다. 이국성을 시각화하는 것이 상서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핵심 논리였다. 따라서 시각적으로 익숙한 전설 속 기린이나 사자의 형상이 아니라 이국적인 외형 그대로 묘사된 모습이어야말로 이 동물들이 먼 곳에서 찾아온 존재임을 실감하게 하는 중요한 표현이었다.

이처럼 낯설고 설명 불가능한 존재라는 특성이 상서의 첫 번째 근거였다면 두 번째로 강조된 점은 이러한 동물들이 ‘자발적’이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중국에 도래했다는 점이었다. 당시 정화와 여러 차례 항해를 함께한 통역관 馬歡(1380~1460년경 활동)의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동물들은 현지에서 명나라의 관료들이 교역을 통하여 구입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sup>27</sup> 그러나 북경에 도착한 이후 제작된 궁정회화와 명 관료들의 詩文에는 먼 이국의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영락제에게 상서로운 동물을 바친 것으로 묘사되었다. 명 관원들이 지은 讚文에는 복록과 사자가 猛獸로서의 공격적인 본성을 억제한 채 평화롭게 중국에 이르러 황제에게 귀의하였다고 서술되어 있다.<sup>28</sup> 이러한 문학적 修辭와 유사하게 15세기 전반 명 궁정에서 제작된 사자 그림에는 사자가 새끼들과 어우러지거나 자연 속에 평온히 앉아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와 같은 문헌적, 회화적 묘사는 영락제의 德治에 하늘과 萬物이 감응하여 맹수조차 온순해졌음을 시각화하기 위한 의도적인 표현으로 이해된다.

## 2. 수현사와 보탑사의 그림

『세종실록』과 『東文選』의 기록에 따르면 수현사와 보탑사의 그림에는 “여러 佛菩薩과 寶

25 『金文靖集』卷10, 「長角獸歌」. “微圖考牒不可辨, 載稽博物何茫茫.”

26 『金文靖集』卷6, 「駝雞賦」. “稽往牒而莫徵, 考載籍而難辨.”

27 중국 관료들이 이 동물들을 현지에서 구매했을 가능성은 J. J. L. Duyvendak, “The True Dates of the Chinese Maritime Expeditions in the Early Fifteenth Century,” *T'oung Pao* 34 (1939): pp. 341-413 참조. 마환의 여행기에는 영락 19년에 기린, 사자, 복록을 현지에서 구매했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확인된다. 馬歡, 『瀛涯勝覽』, 「阿丹國」.

28 金幼孜, 『金文靖集』卷2, 「福祿獸歌」; 金幼孜, 『金文靖集』卷6, 「獅子贊」; 楊榮, 『文敏集』卷1, 「瑞應麒麟詩」.

탑이 공중에 나타나고 태양 아래에 신령한 용과 화려한 봉황이 날아다니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었다고 한다.<sup>29</sup> 그렇다면 수현사와 보탑사는 실제로 중국의 어느 지역에 위치한 사찰이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경녕군 일행이 귀국한 직후 조선의 議政府 參贊 卞季良(1369~1430)이 태종의 명으로 영락제의 聖德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은 「賀聖明歌」가 주목된다. 이 노래에는 당시 조선 조정에서 파악한 영락 연간의 상서 현상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 변계량은 그 후반부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惟帝至誠，無所不格。	황제[영락제]의 지극한 정성은 이르지 않은 곳이 없어,
<b>報恩五臺，祥瑞雜遝。</b>	<b>보은사와 오대산에 상서로운 징조가 뒤섞여 모여든다.</b>
<b>空見如來，諸佛菩薩。</b>	<b>공중에는 여래와 여러 부처, 보살이 나타나고,</b>
<b>磷磷寶塔，羅漢千百。</b>	<b>찬란한 보탑이 빛나며 수많은 나한들이 둘러 있다.</b>
龍鳳獅象，左右周匝。	용과 봉황, 사자와 코끼리가 좌우를 에워싸고,
天花祥雲，璀璨燁煜。	천화와 상서로운 구름이 찬란히 빛난다.
種種靈果，不可備述。	온갖 신령한 열매들은 말로 다할 수 없으며,
大小稽首，天子萬福。	크고 작은 존재들이 모두 머리 숙여 절하니 천자는 만복을 받으시도다. <sup>30</sup>

이 노래에서 묘사된 불교적 상서는 『세종실록』과 『동문선』에 전하는 보탑사와 수현사의 그림 내용과 동일하다. 그러나 변계량은 이러한 상서가 발생한 장소로 수현사나 보탑사가 아닌 영락제 때 건립된 南京의 大報恩寺와 山西省의 불교 聖山 五臺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하여 1419년 여름에 영락제가 대보은사와 오대산의 顯通寺에 『諸佛世尊如來菩薩尊者名稱歌曲』(이하 『명칭가곡』)을 반포한 직후 그곳에서 각종 異蹟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명칭가곡』은 영락제가 1417년에 직접 편찬한 불교가곡으로 발간 직후부터 조선에도 여러 차례 하사되었다. 이 가곡에는 여러 불보살의 명칭이 歌詞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sup>31</sup> 『大明太宗皇帝御製集』에는 영락제가 1419년에 『명칭가곡』을 반포한 뒤 발생한 상

29 『世宗實錄』卷6, 세종 원년 12월 17일(丁亥); 『東文選』卷33, 「賀麒麟福祿獅子空現諸佛世尊寶塔表」. “且諸佛寶塔遍見於空中，而彩鳳神龍相翔於日下.”

30 『世宗實錄』卷6, 세종 1년 12월 26일(丙申). [밑줄과 번역은 모두 필자]

31 『명칭가곡』의 구성과 내용 및 조선에 배포된 시기에 관해서는 조혜미, 「『諸佛世尊如來菩薩尊者名稱歌曲』變相版畫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21) 참고.

서를 기념하여 지은 「五臺山施經瑞應序」와 「報恩寺施經瑞應序」가 수록되어 있다.<sup>32</sup> 이에 따르면 영락제가 대보은사와 현통사에 『명칭가곡』을 반포하자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五色의 빛이 발산하며 千佛과 관음보살 및 나한 등이 공중에 나타나는 묘한 장관이 발생했다고 하였다. 또한 그 빛 속에 佛塔과 舍利, 용, 봉황, 기린, 사자, 코끼리 등 신령한 형상들이 나타나 하늘과 땅을 환히 밝혔다고 하였다. 당시 영락제는 이러한 상서로운 장면들을 모두 그림으로 남기도록 명했다.<sup>33</sup> 따라서 영락제가 조선 사신단에 하사한 수현사와 보탑사의 그림은 1419년 여름에 『명칭가곡』의 반포로 발생한 이적을 그린 그림들을 바탕으로 제작된 회화로 판단된



Fig. 8. 작자미상, 《噶瑪巴爲明太祖薦福圖》 Anonymous, *Miracles of the Mass of Universal Salvation Conducted by the Fifth Karmapa for the Emperor Hongwu*, 1407, Handscroll, Ink and Colors on Silk, 4,968.0×66.0cm, Tibet Museum, Lhasa (Jia and Wang Mingxing, eds., *Baozang: Zhongguo xizang lishi wenwu*, pp. 94-135)

- 32 『大明太宗皇帝御製集』, 「報恩寺施經瑞應序」. 「朕統承寶祚, 體念慈悲, 心存平等, 利益有情, 比遣人以諸佛如來菩薩尊者名稱歌曲及名經, 往大報恩寺散施. 維時天宇澄朗, 和氣融溢, 卿雲捧日以交輝, 天花麗宵而彌布, 五色繽紛, 流動充滿, 山川草木, 鹹被光華. 既而復有千佛. 觀音菩薩及無量阿羅漢示現雲中, 層見疊出, 備極勝妙. 又於光中現浮圖. 舍利. 金光. 玉毫及龍. 鳳. 麒麟. 獅. 象. 法螺. 菩提樹, 種種靈異, 璀璨炫煜, 輝耀天地」; 『大明太宗皇帝御製集』, 「五台山施經瑞應序」. 「乃永樂十七年夏五月, 遣人齋歌曲名經往五台山散施. 以六月十五日至顯通寺, 即有祥光煥發, 五色絢爛, 上燭霄漢, 衣被山穀, 彌滿流動, 朗耀日星, 久而不散. 已而復有文殊菩薩乘獅子隱隱出雲際, 微露形跡」
- 33 『大明太宗皇帝御製集』, 「報恩寺施經瑞應序」. 「朕因睹此勝妙吉祥, 特命工繪爲圖, 並系以歌曲」; 『大明太宗皇帝御製集』, 「五台山施經瑞應序」. 「凡有所爲, 一出於至誠, 是以佛經所至, 屢獲感通, 觀於五台之顯應, 尤足徵矣. 今特命工繪爲圖, 且復爲歌曲以系之」



Fig. 9. Detail of Fig. 8

Fig. 10. Detail of Fig. 8

Fig. 11. Detail of Fig. 8

다. 즉 『세종실록』에서 언급된 수현사와 보탑사는 각각 오대산의 현통사와 남경의 대보은사를 가리킨 것이다. 또한 “隨現寺”와 “寶塔寺”라는 사찰명은 그림 속에 묘사된 불보살의 “顯現”과 “寶塔”의 출현 장면을 텍스트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誤記로 추정된다.

『명칭가곡』의 반포 이후 발생한 상서를 그린 회화의 내용은 영락 5년(1407)에 제작된 《噶瑪巴爲明太祖薦福圖》[이하 《천복도》]의 장면들과 매우 유사하다(Fig. 8).<sup>34</sup> 이 작품은 영락 5년 초에 남경의 靈谷寺에서 개최된 불교 의례에서 발생한 神異 현상을 날짜별로 묘사한 長卷의 회화이다. 이 가운데 2월 14일의 장면에는 공중에 불보살과 나한이 나타난 모습이 그려져 있다(Fig. 9). 같은 달 18일의 장면에는 태양 아래를 날아다니는 봉황과 용의 형상을 한 구름이 묘사되어 있다(Figs. 10, 11). 이러한 장면들을 통하여 당시 조선에 전해진 그림들 속 불보살과 불탑이 현현하고 봉황과 용의 형상이 하늘에 나타난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영락제는 1419년 이전에 남경과 북경을 비롯하여 武當山과 오대산 등 불교와 도교의 聖山에 위치한 여러 사찰과 道觀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도록 명했다. 아울러 그는 부모의 혼령을 위로하고 제국의 안녕을 기원하는 대규모의 의례를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sup>35</sup> 이때 도관과

34 《천복도》에 관한 연구는 Patricia Berger, “Miracles in Nanjing: An Imperial Record of the Fifth Karmapa’s Visit to the Chinese Capital,” in *Cultural Intersections in Later Chinese Buddhism*, ed. Marsha Weidner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1), pp. 145-169; 駱愛麗, 「明成祖與大寶法王交流研究—以宗教畫卷《薦福圖》為例」, 『新世紀宗教研究』第6卷 第1期 (2006), pp. 31-80 참조. 작품명은 다음의 도록을 기준으로 하였다. 甲央·王明星 主編, 『寶藏: 中國西藏歷史文物』(北京: 朝華出版社, 2000), p. 94.

35 영락 연간 사찰과 도관의 증건이 홍무제와 마황후에 대한 효를 명분으로 했다는 사실은 Cheng-hua Wang, “Material

사찰의 상공에 신비로운 구름과 오색의 빛이 나타나고 불보살과 도교 신들이 며칠간 현현하는 이적이 있었다. 영락제는 이러한 현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장면 별로 세밀히 묘사한 회화를 제작하도록 명하였다. 《천복도》 외에 《無量福壽圖》와 『正統道藏』에 수록된 《大明玄天上帝瑞應圖錄》이 이러한 맥락에서 제작된 작품들로 모두 영락 연간에 무당산의 도관에서 발생한 상서가 그려진 그림들이다(Figs. 12, 13).<sup>36</sup> 이 그림들은 공통적으로 화면 속 정교하게 묘사된 중심 건축물을 축으로 하여 감상자가 정면에서 이적을 직접 목격하는 듯한 시점을 취한 형식을 보인다. 이러한 구성을 지닌 그림들과 유사한 그림이 조선에 하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Fig. 12. 《大明玄天上帝瑞應圖錄》중 일부 Detail of *Illustrated Record of the Auspicious Responses of the Supreme Emperor of the Dark Heaven of the Great Ming Dynasty*, Woodblock Print, Ink on Paper, 35.0×11.3cm (each page), Bibliotheque National de France, Paris, (Stephen Little, *Taoism and the Arts of China*, p. 302)

Fig. 13. 《無量福壽圖》중 부분 Detail of *Infinite Blessings and Longevity*, 15th Century, Handscroll, Ink and Color on Silk, 56×85cm (each section), White Cloud Temple (Baiyun Guan), Beijing (Stephen Little, *Taoism and the Arts of China*, p. 303)

Culture and Emperorsip: The Shaping of Imperial Roles at the Court of Xuanzong (r. 1426-35)” (PhD diss., Yale University, 1998), p. 25 참조.

<sup>36</sup> 무당산은 송대 이후 중국에서 眞武가 신선이 된 聖所로 알려져 있었다. 영락제는 1412년의 칙령에서 정난의 변 당시 眞武神이 도운 덕분에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1418년에 영락제는 무당산을 五嶽보다 지위가 높은 大岳太和山으로 봉했다. 정난의 변 이후 영락제가 무당산에 주목한 이유는 진무가 전쟁의 신이자 북방의 신이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영락제가 한때 燕王, 즉 남경과는 떨어진 ‘北平’의 왕이었기 때문이다. 영락제는 스스로를 진무신과 유사하게 표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Wang, 앞의 논문, pp. 25-26 참조.

### III. 영락제가 하사한 그림의 제작 맥락

#### 1. 상서로운 동물의 출현과 북경의 神都化

영락제가 조선에 하사한 그림들은 명나라의 궁정에서 어떤 맥락에서 제작된 것일까? <기린 심도송>이나 《명인서응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영락 연간 초부터 정화의 원정을 통하여 기린과 사자, 흰 코끼리 등 이국적인 동물들이 지속적으로 중국에 유입되었다.<sup>37</sup> 그런데 특히 1419년에는 그 규모와 종류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해졌다. 명의 관료였던 금유자와 夏原吉(1366~1430)의 기록에 따르면 이 해에는 과거 진상된 적이 없는 다양한 동물들이 동시에 북경에 도착하였다고 한다. 사자, 표범, 낙타, 영양, 사슴, 얼룩말, 코뿔소, 기린, 타조 등 진귀한 동물들이 잇따라 헌상되었다. 하원길은 「聖德瑞應詩」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영락 기해년[1419] 가을, 해외의 홀로모스(忽魯謨斯) 등 여러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어, 기린, 사자, 천마(天馬), 표범(文豹), 자색 코끼리(紫象), 타계(駝雞, 머리를 들면 높이가 일곱 자이다), 복록(낙타처럼 생겼으나 아름다운 무늬가 있다), 영양(靈羊, 꼬리가 커서 스무 근이 넘고, 걸을 때 수레에 싣고 다닌다), 장각마합수(長角馬哈獸, 뿔이 몸보다 길다), 오색앵무(五色鸚鵡) 등의 새를 바쳤다. 또 교지(交趾, 오늘날의 베트남)에서 흰 까마귀(白鳥), 산봉(山鳳), 세 개의 꼬리를 가진 거북(三尾龜) 등을 바쳤다. 황제께서는 이를 정원에 진열하게 하시고, 그 광경을 보신 뒤 여러 관료들에게 명하여 賦를 짓게 하셨다.<sup>38</sup> [밑줄은 필자]

하원길의 기록에 따르면 영락제는 각국에서 바친 희귀한 동물들을 궁궐 내 정원에 모아두고 대신들이 관람하게 한 뒤 그 장면을 기념하는 글을 짓게 하였다. 이러한 감상 행사는 명의 관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으로 보인다. 금유자가 남긴 글들은 당시 궁정의 관료들이 느낀 놀라움과 감탄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 준다.<sup>39</sup>

37 Liscomb, 앞의 논문, pp. 341-378 참조.

38 『忠靖集』卷2, 「聖德瑞應詩」, “永樂己亥秋, 海外忽魯謨斯等國遣使來進麒麟、獅子、天馬、文豹、紫象、駝雞[昂首高七尺]、福祿[似駝而花文可愛]、靈羊[尾大者重二十餘斤行則以車載其尾]、長角馬哈獸[角長過身]、五色鸚鵡等鳥, 又交趾進白鳥、山鳳、三尾龜等物, 賜觀於庭, 承制賦此.”

39 Duyvendak, 앞의 논문, p. 382.

영락 기해년[1419] 가을 팔월 길일, 서남쪽 나라에서 기이한 새 한 마리를 바쳐 왔다. …… **황제께서 奉天門에 나아가시어 친히 살피시고 이를 신하들에게 내려 보이시니 모든 신하들이 목을 빼고 바라보며 경탄하고 발을 구르며 놀라 말하였다. “이것은 세상에 드문 희귀한 새로, 중국에서는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sup>40</sup>

영락제는 봉천문까지 나가 이름 모를 새를 직접 살피고 조정의 문무백관에게 이를 공개하여 관람시켰다. 금유자가 황제의 덕을 찬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글을 썼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감탄에는 수사적 과장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여러 종류의 이국적 동물들이 동시에 대규모로 궁정에 유입된 사건이 이들에게 시각적 충격을 주었음은 분명하다. 금유자는 「복록수가」에서도 날마다 사신들이 계속 중국에 도착하여 기이한 상서들이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서술했다. 또한 이 동물들의 모습을 모두 그림으로 그려 중국과 오랑캐의 모든 福을 모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sup>41</sup> 이러한 서술을 고려하였을 때 상서로운 동물들의 출현과 그것을 회화로 제작한 행위는 제국의 안팎을 아우르는 瑞氣와 福을 모으는 주술적인 의미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중국 안팎의 동물들이 모두 북경의 궁궐에 모였다는 금유자와 하원길의 서술은 단순한 문학적 修辭가 아닌 북경 遷都를 정당화한 발언으로 생각된다. 진 세계에서 바쳐진 동물들이 紫禁城에 집결한 광경과 이를 기록한 회화들은 당시 막 완공되어 가던 새로운 수도 북경이 천하의 중심이자 신성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냈을 것으로 판단된다. 1419년은 남경에서 북경으로의 천도가 마무리되기 직전의 시기였다. 실제로 자금성의 봉천전은 이듬해인 1420년에서야 비로소 완공되었다.<sup>42</sup> 즉 영락제가 조선 사신단을 맞이한 북경의 자금성은 황제의 신성한 거처로서 모습을 갖추어 가던 정치적 현장이었다.

영락제는 과거에 이미 자금성 축조 과정에서 발생한 상서로운 징조를 천도의 명분으로 활용한 바 있다. 영락 5년(1407)에는 四川 지역에서 궁궐 공사용 목재인 楠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거대한 벌목들이 스스로 강가로 흘러나와 운송될 준비가 되어 있었

40 『金文靖集』卷6, 「馳雞賦」. “永樂己亥秋八月吉旦, 西南之國有以異禽來獻者. …… 皇帝御奉天門, 特以頒示羣臣. 莫不引領快觀, 頓足駭愕, 以為希世之罕聞、中國所未見.”

41 金幼孜, 『金文靖集』卷2, 「福祿獸歌」. “遠人稽首貢方物, 異瑞奇祥莫殫錄. 駟虞麒麟在靈囿, 渥洼龍媒聚天育. 願將職貢寫成圖, 一統華夷集諸福.”

42 북경 도시 정비 사업과 자금성 축조 과정은 Aurelia Campbell, *What the Emperor Built: Architecture and Empire in the Early Ming*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20), pp. 21-88.

다는 상서가 보고되었다. 영락제는 이를 山川 神靈들의 도움으로 간주하고 이 나무를 “神木”으로 칭했다.<sup>43</sup> 또한 1417년 봉천전과 乾清宮이 착공된 직후 자금성 내 金水河와 太液池의 얼음에서 누각, 용, 봉황, 꽃의 형상이 나타났다고 한다.<sup>44</sup> 이러한 상서들은 자금성 축조가 하늘의 뜻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로 간주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외국에서 바쳐진 동물들의 수집과 전시, 그리고 이를 소재로 한 문학과 회화 작품의 창작은 자금성을 ‘상서로운’ 중심 공간으로 표상하기 위한 정치적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금유지는 북쪽이 먼바다에서 북경까지 오는 동안 산천마다 상서로운 기운과 향기로 온 안개가 자욱했다고 기록하였다. 또한 하원길은 기린이 玉階에 나타나고 사자는 金鋪에 바쳐졌다고 하며 동물들을 궁궐 건축과 결부시켜 묘사했다.<sup>45</sup> 이러한 서술은 상서로운 동물들이 북경 궁궐을 신성화하는 매개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하원길은 여러 나라에서 바쳐진 동물들이 “신성한 수도[神都]를 더욱 빛나게 한다”라고 기록하였다.<sup>46</sup> 상서로운 동물들의 도래는 새 수도 북경을 吉地로 드러내는 사건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묘사들은 漢武帝(재위 기원전 141~87)의 上林苑을 떠올리게 한다. 한나라의 무제는 상림원에 변방 지역의 진상품이나 중앙아시아 원정에서 획득한 희귀한 동식물을 모아두었다. 이를 통하여 그는 상림원을 신성한 땅으로 바꾸고 황제의 주요 거처이자 의례의 중심지로 여기며 여러 면에서 都城을 대신하도록 했다고 한다.<sup>47</sup> 사자, 기린, 북록을 그린 동물 그림들 역시 북경을 신성한 땅으로 시각화함으로써 遷都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궁정 문예 활동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경향은 《北京八景圖》에서도 확인된다. 이 그림의 讚詩에서 양영은 북경을 제국의 중심으로 찬양하면서 그곳이 지리적으로 길지라는 점, 즉 왕조의 번영과 장수를 보장할 만한 장소로서의 적합성도 강조한 바 있다.<sup>48</sup> 따라서 조선에 하사된 동물 그림들

43 『太宗文皇帝實錄』卷65 영락 5년 3월 10일(甲子) “工部尚書宋禮言, 有大木數株, 不藉人力, 一夕出天谷, 達于江. 蓋山川之靈相之賜, 其山名神木山. 遣禮部郎中王羽祭之, 且建祠立碑, 命翰林院侍讀胡廣製碑文.”

44 『太宗文皇帝實錄』卷194, 영락 15년 11월 21일(壬申). “金水河及太液池水凝, 具樓閣, 龍鳳, 花卉之狀, 奇巧特異. 上賜羣臣觀之. 行在禮部尚書呂震以為禎祥屢見, 率百官上表賀.”; 『太宗實錄』卷35, 태종 18년 2월 13일(甲午).

45 夏原吉, 『忠靖集』卷2, 「聖德瑞應詩」. “麒麟呈玉陛, 獅子貢金鋪. 紫象靈山種, 驕驪渥水駒. 駝雞同鷺鷥, 文豹擬騶虞. 福祿身紆錦, 靈羊尾載車. 霜姿狷更異, 長角獸尤殊. 綵檻奇音鳥, 雕籠雪色鳥. 玄龜三尾曳, 山鳳五花敷. 日上龍輝麗, 風回鳳閣迂. 禮官躬典設, 蕃使肅奔趨. 仙掌開丹扈, 祥煙散紫衢.”

46 夏原吉, 『忠靖集』卷2, 「聖德瑞應詩」. “永樂己亥秋, 海外忽魯謨斯等國, 遣使來進麒麟, 獅子, 天馬, 文豹, 紫象, 駝雞[昂首高七尺], 福祿[似駝而花文可愛], 靈羊[尾大者重二十餘斤, 行則以車載其尾], 長角馬哈獸[角長過身], 五色鸚鵡等鳥. 又交趾進白鳥, 山鳳, 三尾龜等物, 賜觀於庭, 承制賦此. …… 既將昭帝德, 尤足壯神都.”

47 Mark Edward Lewis, *The Early Chinese Empires: Qin and Han* (Cambridge, MA and London: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pp. 88-101.

48 Kathlyan Liscomb, “The Eight Views of Beijing: Politics in Literati Art,” *Artibus Asiae* 49 (1988-1989): p. 128.

은 북경 천도를 정당화하고자 북경을 상서로운 공간으로 부각하는 과정에서 제작된 작품들을 모본으로 한 그림들로 생각된다.

## 2. 『명칭가곡』과 轉輪聖王으로 표상된 영락제

수현사와 보탑사의 그림들은 『명칭가곡』이 대보은사와 현통사에 반포된 직후 발생한 상서를 묘사한 그림들이었다. 그런데 이 그림들은 불교적 이적을 단순히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명칭가곡』을 창작한 영락제를 영험한 힘을 가진 존재로 부각시키는 시각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영락제가 『명칭가곡』을 제작한 배경이 주목된다. 영락제는 영락 5년(1407)에 남경을 방문한 티베트 불교 카귀파(Kagyü)의 首長인 카르마파(Karmapa) 5세 데신 쉼파(Deshin Shekpa, 1384~1415)의 神通力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sup>49</sup> 당시 데신 쉼파가 남경에서 영락제의 요청으로 거행한 법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났다고 전해진다.

18일, …… 달이 밝고 青鸞과 白鶴 무리가 하늘을 가로질러 날며 돌면서 춤추었고 천화가 허공을 떠다녔으며, 상서로운 구름이 사방에 모여들고 瑞氣이 푸르게 빛났으며, 감로가 구슬처럼 반짝였다. 신령한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萬神이 모두 모였다. 또한 상서로운 구름이 용, 봉황, 사자, 코끼리, 보탑과 같은 형상을 이루었다. 밤이 되자 …… 탑의 꼭대기에서 사리가 나타나 찬란하게 빛나며 하늘의 등불과 조화를 이루었다. 갑자기 梵唄 소리와 음악이 공중에서 들려왔는데 맑고 청아한 음률이 여러 악기들이 서로 어울려 함께 울려 퍼졌다. 그 소리가 壇殿을 흔들었고 법당 안에 들어가 그 소리를 듣고자 하였으나, 그 음률은 마치 허공에서 들려오는 듯하였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멈추었다. 잠시 후 모든 이들이 금빛으로 가득한 세계를 보았다.<sup>50</sup>

위 기록에 따르면 탑 꼭대기에서 사리가 나타나 찬란하게 빛나는 가운데 어디선가 天上의

49 영락제가 카르마파에게 배운 융숭한 대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우지, 「1406~1408년 티베트 승려 哈立麻의 중국 방문과 조신」, 『명칭사연구』 63 (2025), pp. 40-42 참조.

50 “十八日，齋事圓滿。青鸞、白鶴羣飛翩躚，交錯旋舞，天花飄空，卿雲四合，瑞氣蔥蔚，甘露眩珠，靈風瀏瀏，萬神畢聚，復有祥雲，如龍如鳳如獅如象如寶塔。至夜，山門兩幡竿上距數丈餘天燈二，其赤異常，硃砂不足擬萬一，光彩四達。遙見燈影中有乘青獅、白象而來者，瓔珞珠佩煥然燦麗。少頃，塔頂舍利畢見，光輝朗耀，交徹天燈。忽聞梵唄空樂，音韻清亮，絲竹交作，金石合奏，響振壇殿，及入殿聆之，則其音聲宛在空中，如是良久乃止。未幾，普見金色世界。” 《천복도》의 18일자 跋文 참조.

음악이 들려 왔다고 한다. 즉 대신 섹파가 주관한 법회에서 영락제는 천상의 음악이 울려 퍼지며 불보살이 현현하는 壯觀을 직접 목격했던 것이다. 영락제는 이 法會에서 발생한 神異 현상을 통하여 대신 섹파의 영험함을 경험하였다. 이와 같이 화려한 이적과 천상의 음악이 결합된 광경은 영락제가 추후 이적을 일으키는 『명칭가곡』을 창작하는 데 강력한 영감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6세기에 활동한 관료인 何良俊(1506~1573)은 『四友齋叢說』에서 이 법회를 계기로 영락제가 불교 경전에 더욱 몰두하여 스스로 佛曲, 즉 『명칭가곡』을 지어 사람들이 궁정에서 노래하고 춤추게 하였다고 기록했다.<sup>51</sup>



Fig. 14. 佛像 *Buddha*, Yongle period (1403-1424), Gilt Bronze, H. 72.5cm, Speelman Collection, London (James C. Y. Watt and Denise Patry Leidy eds., *Defining Yongle: Imperial Art in Early Fifteenth-Century China*, p. 69)

Fig. 15. 『諸佛世尊如來菩薩尊者名稱歌曲』 변상판화 *Woodcut Print of Song for the Names of Various Buddhas and Bodhisattvas*, 1417, Ink on Paper, 18.3×10.3cm, Pogwang-sa, Sokch'o (Cho, Hyemi, “*Zhufo Shizun Rulai Pusa Zunzhe Mingcheng Gequ pyönsang panhwa yön'gu*,” p. 43)

<sup>51</sup> 何良俊, 『四友齋叢說』卷22, 釋道2 “丁亥永樂五年, …… 二月, 命西僧尚師哈立麻, 於靈谷寺啟建法壇, 薦祀皇考皇妣, 尚師率天下僧伽, 舉揚普度大齋, 科十有四日, 卿雲天花, 甘雨甘露, 舍利祥光, 青鸞白鶴連日畢集, 一夕檜柏生金色花遍於都城, 金仙羅漢變現雲表, 白象青獅莊嚴妙相, 天燈導引旛蓋旋遶 亦既來下. 又聞梵唄空樂自天而降. 群臣上表稱賀, 學士胡廣等, 獻聖孝瑞應歌頌. 自是之後, 上潛心釋典作為佛曲, 使宮中歌舞之 ……” 『釋鑑稽古略續集』 제3권 T2038, 49:0941c; 조혜미, 앞의 논문, p. 6에서 재인용.

이 시기에 영락제와 그의 부인 仁孝皇后 徐氏는 대신 섹파로부터 灌頂 의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敎法 역시 전수받았다. 이때 영락제는 티베트의 승려들에게 명에서 제작된 티베트 불교 양식의 佛像과 儀式具를 다수 하사했다.<sup>52</sup> 흥미롭게도 『명칭가곡』에 실린 降魔觸地印을 한 불상이 그려진 변상 관화는 이와 같이 영락 연간 명 궁정에서 제작된 티베트 불교 양식의 불상과 매우 유사하다(Figs. 14, 15).<sup>53</sup> 이러한 양식의 변상 관화가 『명칭가곡』에 실린 사실은 영락제가 대신 섹파의 남경 방문 이후 그로부터 받은 종교적 가르침의 영향을 짐작하게 한다. 아울러 영락제가 티베트 불교와 그 미술품이 가진 영적 힘에 대한 믿음이 상당하였음을 보여준다.<sup>54</sup> 영락제가 『명칭가곡』을 반포한 곳에서 발생한 상서 현상들은 대신 섹파가 범회 중 일으킨 이적과 매우 유사하다. 당시 대신 섹파가 일으킨 상서는 《천복도》에 잘 묘사되어 있다(Fig. 8). 이러한 상서 현상은 『阿彌陀經』과 『聖極樂世界莊嚴大乘經』에서 극락세계를 묘사할 때 등장하는 요소들로 상서가 발생한 공간이 佛國淨土와 유사하게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55</sup>

한편 『명칭가곡』이 불러일으킨 상서를 그린 그림에서 주목되는 것은 바로 공중에 나타난 보탑과 빛나는 사리에 관한 묘사이다. 이는 영락제가 중국 밖에서 광범위하게 佛舍利를 수집했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신 섹파가 남경을 방문했을 때 그는 高僧들의 사리와 불사리를 영락제에게 바쳤다. 이 시기에 영락제의 요청으로 조신은 여러 차례 불사리를 보냈다. 이 사리는 대신 섹파가 靈谷寺에서 홍무제와 마황후를 위한 의례를 거행할 때 활용되었다.<sup>56</sup> 선행 연구들을 통하여 잘 알려졌듯이 영락제는 정화를 통하여 스리랑카에서 佛齒를 수집했으며, 북경 眞覺寺에 金剛寶座塔을 지어 이를 봉안하도록 명하기도 했다.<sup>57</sup> 이와 같이

52 『明太宗實錄』卷63 영락 5년 정월 19일의 기사 참조. 영락제가 재위기 동안 티베트의 高僧들에게 하사한 회화와 자수, 불상, 공예품 및 각종 의식구에 관해서는 James C. Y. Watt and Denise Patry Leidy eds., *Defining Yongle: Imperial Art in Early Fifteenth-Century China*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2005); Karl Philip Debrezseny, "Ethnicity and Esoteric Power: Negotiating the Sino-Tibetan Synthesis in Ming Buddhist Painting" (PhD diss., University of Chicago, 2007), pp. 98-107; 故宮博物院編, 『永宣時代及其影響: 兩岸故宮第二屆學術研討會論文集』(北京: 故宮出版社, 2012) 참조. 이들 유물에는 "大明永樂年施"라는 기년명이 쓰여져 있다.

53 변상관화의 본존이 향마촉지인의 수인을 한 사례가 매우 드물며, 이러한 도상이 티베트 지역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은 조혜미, 앞의 논문, pp. 45-50 참조.

54 티베트인 宦官 侯顯(1365~1438)을 통하여 영락제가 카르마파에게 보낸 서신에는 카르마파의 道術에 대한 영락제의 기대가 카르마파가 남경을 방문하기 전부터 시작되었음을 알려준다. 최소영, 「永樂帝의 티베트인 宦官 侯顯(1365-1438)의 위쟁(烏思藏) 使行 연구」, 『中國史研究』140 (2022), pp. 112-113 참조.

55 羅文華, 「明大寶法王建普度大齋長卷」, 『中國藏學』1995年 第3期, p. 91.

56 이옥지, 앞의 논문, pp. 46-49.

57 Tansen Sen, "Diplomacy, Trade and the Quest for the Buddha's Tooth: The Yongle Emperor and Ming China's South Asian Frontier," In Craig Clunas et al., *Ming China: Courts and Contacts 1400-1450* (London: British Museum Press, 2016), pp. 26-36.

명나라 밖에서 수집된 사리들은 영락제가 새롭게 건립하거나 증창한 사찰들에 봉안되었다. 흥미롭게도 조선 사신들이 명나라에서 그림을 받아온 1419년의 여름에도 명나라 사신들은 영락제의 명으로 조선에서 석가모니의 사리와 頂骨 및 여러 불보살과 名僧의 사리 558顆를 가지고 돌아간 바 있었다.<sup>58</sup>

이와 같은 영락제의 불사리 수집 활동은 인도의 아쇼카왕, 즉 轉輪聖王이 부처의 사리를 모아 인도 전역에 세운 불탑의 전통을 떠오르게 한다. 영락제가 스스로를 전륜성왕으로 시각화했음에 관해서는 여러 연구들을 통하여 지적된 바 있다.<sup>59</sup> 특히 영락제는 대신 祿法王으로 임명하여 그의 후원자를 자처하였는데 이후에도 티베트 불교 지도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을 불교 세계의 수호자로 형상화하고자 했다.<sup>60</sup> 이를 통하여 영락제는 자신이 세속뿐만 아니라 종교 세계에서든 권위를 가진 군주임을 피력하고자 했다.<sup>61</sup> 이러한 맥락을 고려했을 때 『명칭가곡』의 기적이 묘사된 그림들은 영락제가 스스로를 카르마파와 같이 이적을 일으키는 영험한 종교적 힘을 가진 존재로 표상하기 위하여 주문했을 가능성이 크다.

#### IV. 조선 왕자의 사행과 영락 연간의 상서 기념 방식

1419년에 영락제가 경녕군 일행에게 하사한 그림들은 같은 해에 명에서 발생한 여러 상서 현상을 종합적으로 묘사한 작품들이었다. 이러한 하사 행위는 당시 사신단의 대표가 조선 관료가 아니라 國王의 아들이었다는 점과 밀접히 관련된다. 왕자의 사행은 곧 국왕의 親朝에 준하는 특별한 외교 행위로 이해되었다.<sup>62</sup> 따라서 황제는 왕자 사행에 대해 일반 사신과 구별

58 『世宗實錄』 卷5, 세종 1년 8월 22일(甲午); 『世宗實錄』 卷5, 세종 1년 9월 18일(庚申).

59 이와 관련된 논의는 Dora C. Y. Ching, "Tibetan Buddhism and the Creation of the Ming Imperial Image," In *Culture, Courtiers, and Competition*, David M. Robinson, ed (Cambridge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8), pp. 337-346; Elliot Sperling, "Early Ming Policy Toward Tibet: An Examination of the Proposition That the Early Ming Emperor Adopted a 'Divide and Rule' Policy Towards Tibet" (Ph. D.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1986), pp. 89-91 참조.

60 '대보법왕'은 쿠빌라이 칸(Khubilai Khan, 재위 1260~1294)이 사카파(Sakyapa)의 수장 파크파(Phakpa, 1235~1280)에게 내렸던 칭호이다. 이를 통해 쿠빌라이 칸은 스스로를 불법의 수호자인 전륜성왕으로 비유하고자 했다. 영락제는 의도적으로 자신과 카르마파의 관계를 쿠빌라이 칸과 파크파의 관계에 유비하였다. Sperling, 앞의 논문, pp. 89-91.

61 Dora C. Ching, 앞의 논문, p. 342.

62 조선 건국 초 시기에 왕자들이 사행을 간 배경은 윤승희, 「조선 건국 초 왕자의 명 사행과 그 정치적 의미」, 『조선시대사학

되는 높은 예우를 베풀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행은 이미 영락 6년(1408)에 세자 讓寧大君의 남경 방문에서 확인된다. 영락제는 당시 15살이던 양녕대군을 태종이 사행에 보냈다고 그 충성심을 높이 사고 양녕대군을 특별히 신경쓸 것을 명하였다. 이러한 예우 가운데 하나는 양녕대군 일행으로 하여금 남경의 영곡사, 朝天宮, 天禧寺, 天界寺, 能仁寺를 방문하도록 명한 것이다.<sup>63</sup> 흥미롭게도 이 사찰과 도관들은 모두 영락 4년에서 6년 사이 대규모 상서가 보고된 장소들이었다.<sup>64</sup> 이와 유사하게 영락 17년에 북경을 방문한 경녕군 역시 태종의 아들이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영락제는 “[경녕군을 접대하는 일은 그의 父王이 반드시 알 것이니 관공하게 대접하라]”라고 명하며 경녕군에게 각별한 예우를 베풀었다.<sup>65</sup> 이는 영락제가 경녕군을 단순한 관료 사신이 아닌 조선 국왕의 대리인으로 여겼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영락제가 경녕군 일행에게 상서의 그림을 하사한 행위는 바로 이러한 예우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영락제는 경녕군 일행에게 봉천전에서 상서로운 동물들을 이틀간 직접 관람하게 한 뒤 그림을 하사했다. 장자충의 『판서공조천일기』에 따르면 이때 봉천전의 중앙에 영락제가 앉아 있고 그 앞에 세 동물이 진열되어 있었다고 한다. 장자충은 당시 세 동물을 황제의 덕과 연결짓는 짧은 시를 남겼다. 이 시는 당시 장자충이 각 동물을 감상한 뒤 황제를 위하여 즉석에서 지은 應製詩였을 가능성이 있다.<sup>66</sup> 이와 유사하게 양녕대군 일행 또한 남경 방문 당시 명 禮部의 요청에 따라 영락제가 카르마과 5세가 일으킨 이적을 칭송하며 쓴 讚佛詩 두 편에 화답시를 지은 바 있다. 당시 영락제는 사신들이 귀국할 때 화답시를 받아 갔을 뿐 회화는 하사하지 않았다.<sup>67</sup> 그런데 경녕군 일행에게는 상서로운 동물을 관람하도록 한 후 마치 기념품처럼 그림을 하사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경녕군과 양녕대군 일행이 명나라에서 겪은 일들은 15세기 전반 영락제가 명 궁정 내에서 측근 문신들과 상서를 기념한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sup>68</sup> 영락 연간에는 황제의 측근 관료들이 상서의 출현을 기념하여 응제 시문을 지어 황제의 덕을 칭송하고 이를 회화로

보』 107 (2023), pp. 263-287 참조.

63 『太宗實錄』 卷15 태종 8년 4월 2일(庚辰).

64 이옥지, 앞의 논문, pp. 31-60.

65 『世宗實錄』 卷6, 세종 원년 11월 27일(丁卯); 『世宗實錄』 卷6, 세종 원년 12월 7일(丁丑).

66 張子忠, 『判書公朝天日記』, 「十八日帝坐奉天殿示三獸」; 「十九日被召見麒麟獅子福祿等獸」.

67 『太宗實錄』 卷15, 태종 8년 4월 2일(庚辰).

68 영락 연간의 정치적 사건을 기념한 회화의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당시 관료들이 황제의 측근이자 성공한 관료로서 자의식을 표현하였다는 연구는 Kathlyn Liscomb, “Foregrounding the Symbiosis of Power: A Rhetorical Strategy in Some Chinese Commemorative Art,” *Art History* 25 (2002): pp. 135-161 참조.

제작하는 일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영락 2년에 神后山에 나타난 흰 호랑이를 그린 <騶虞圖>(타이페이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에는 명의 翰林院과 六部 소속 관료 28명이 그림 속 호랑이를 전설상의 騶虞로 해석한 시문들이 남아 있다.<sup>69</sup> 이들 가운데에는 <杏園雅集圖>에 등장하는 명 초기의 권신 楊士奇(1365~1444), 양영, 王直(1379~1462) 등 文淵閣 출신 영락제의 핵심 측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영락제 시기에 상서를 주제로 한 회화의 제작은 황제와 문신 집단의 協業에 가까웠다.<sup>70</sup> 이러한 협업 방식은 명대 전후로 상서 주제의 회화가 제작된 관행과 대조를 이룬다. 송대 휘종, 청대 雍正帝(재위 1723~1735) 및 乾隆帝 시기에 제작된 회화들에는 주로 황제의 御製詩가 실렸다. 즉 자연 현상이나 자연물이 상서로 규정되는 과정에서 황제의 해석이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비해 영락제 시기의 상서 해석은 문신 집단의 적극적 참여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영락제는 상서 주제의 그림을 관료들과 함께 감상하거나 그들에게 기념품으로써 하사한 것으로 보인다. 明末의 문인이었던 謝肇淛(1567~1624)는 『五雜俎』에서 자신이 한 오래된 가문에서 과거 영락제가 하사한 기린 그림을 보았다는 기록을 남겼다.<sup>71</sup> 그런데 영락제는 국내의 관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사신도 이러한 그림의 감상자로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천복도>에는 영락 5년에 영국사에서 발생한 상서 현상이 한문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어, 산어(Shan), 티베트어, 몽골어로 기록되어 있다. 이 언어들은 <천복도>가 제작된 바로 그해에 남경에 설립된 통역 기관인 四夷館에서 번역될 수 있는 언어였다. 즉 <천복도>는 이와 같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외국인들을 감상자로 전제하여 제작된 작품이었다.<sup>72</sup> 조선의 국왕 역시 이러한 鑑賞人로서 1419년에 상서를 주제로 한 그림 다섯 점을 하사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영락제는 이러한 그림을 조선 국왕에게 하사함으로써 무엇을 기대하였을까? 우선 영락제는 1419년에 상서를 조선에 알림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더욱 높이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조선 국왕이 명의 관료들처럼 상서를 해석하고 그 결과를 회화나 시문으로 응답해 오기를 기대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영락제의 기대는 돌발적인 것이 아

69 <추우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藍御菴, 『《明內府騶虞圖》之研究』, 『書畫藝術學刊』 2009年 第6期, pp. 441-464 참조.

70 李若晴, 앞의 책, pp. 40-68.

71 Liscomb, 앞의 논문 (2002), p. 146 참조. 영락제가 관료들에게 상서를 주제로 한 그림을 감상하도록 한 다른 사례들은 『明太宗實錄』 卷140, 영락 12년 6월 1일(戊申); 『明太宗實錄』 卷196, 영락 12년 정월 15일(丙寅) 등 참조.

72 Roderick Whitfield, "Ming Pyrotechnics: The Xiaoling and the Linggusi in the 1407 Scroll," *Arts of Asia* 44 (2014): p. 81.

니었으며 이미 명 조정 내에서도 반복되고 있었다. 영락 2년에 周王 朱橚(1361~1425)이 바친 흰 호랑이를 28명의 관료들이 시문을 통해 騶虞로 칭송한 일은 이후 관료들과 藩王들이 상서를 보고하거나 그림을 제작하여 바치는 관행의 발단이 되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秦王과 高平王이 각각 황하가 맑아진 현상을 그린 그림을 경쟁적으로 영락제에게 헌상했다.<sup>73</sup> 이후 「騶虞詩」를 지었던 張信(?~1442)과 「騶虞頌」을 지었던 胡濙(1375~1463) 역시 무당산에서 발생한 상서를 보고하며 그림을 바쳤다.<sup>74</sup>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면 영락제는 명에서 관료들과 긴밀히 협업하여 상서를 기념하던 방식을 조선 국왕에게도 그대로 적용해 그림을 하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조선 국왕 역시 상서를 관찰하고 이를 해석하며 시문이나 그림의 형식으로 회답함으로써 명의 상서 기념 의례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암묵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다.

## V. 결론

1419년 영락제가 북경을 방문한 경녕군 일행에게 하사한 다섯 점의 그림은 같은 해 명나라에서 발생한 여러 상서 현상을 기념한 궁정회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들이었다. 이 가운데 세 점의 동물 그림은 정화의 제5차 원정이 종료된 직후 북경에 진상된 동물들을 주제로 한 회화였다. 이국의 진귀한 동물들이 자금성 봉천전에서 전시되고 회화로 제작된 것은 새로운 수도 북경을 세계의 중심이자 상서로운 공간으로 표상하기 위함이었다. 다른 두 점의 그림은 영락제가 오대산의 현통사와 남경의 대보은사에서 『명칭가곡』을 반포한 이후 발생한 여러 이적이 묘사된 회화였다. 『명칭가곡』을 직접 창작한 영락제는 스스로를 이적을 일으키는 전륜성왕적 존재로 시각화하고자 했다. 이 회화에서 나타난 보탑의 형상은 영락제가 아쇼카왕과 같이 사리를 수집한 활동과도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락제는 즉위 이후 궁정에서 관료들과의 협업을 통하여 상서를 기념하고 이와 관련된 회화를 제작하였다. 15세기 초 영락제가 조선에 하사한 그림들은 황제와 관료가 협업하여 상서를 기념하던 명 궁정의 회화 제작 방식이 대외적으로 확장된 결과였다. 영락제가 이러한 그림들

73 解縉, 『文毅集』卷2, 「河清頌」.

74 『明太宗實錄』卷262, 영락 22년 팔월 16일(甲子).

을 경녕군 일행에게 하사한 배경에는 사행의 대표인 경녕군이 조선 태종의 친아들, 즉 왕자였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결국 이 그림의 궁극적인 수령자는 조선의 국왕이었던 세종과 상왕 태종이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동시대 명나라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과 관련된 이 그림들을 어느 정도 이해했으며 이에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이 그림에 관한 수용 문제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논해 보고자 한다.

\* 주제어(keywords)\_영락제(The Yongle Emperor), 상서(auspicious sign), 제불세존여래보살존자명칭가곡(*Songs for the Names of Various Buddhas and Bodhisattvas*), 북경 천도(Beijing relocation), 기린(*qilin*, giraffe), 사자(lion), 북룩(*fulu*, zebra), 정화(Zheng He), 대보은사(Dabao'en Monastery), 오대산(Mount Wutai), 전륜성왕(*cakravartin*), 수현사(Shouxuan Monastery), 보탑사(Baota Monastery)

■ 투고일 2025년 11월 2일 | 심사개시일 2025년 11월 10일 | 심사완료일 2025년 11월 23일 ■

## 참고문헌

### 1. 사료

金幼孜, 『金文靖集』  
『大明太宗皇帝御製集』  
『東文選』  
鄧椿, 『畫繼』  
馬歡, 『瀛涯勝覽』  
『明太宗實錄』  
楊榮, 『文敏集』  
『釋鑑稽古略續集』  
『世宗實錄』  
張子忠, 『判書公朝天日記』  
『太宗文皇帝實錄』  
夏原吉, 『忠靖集』  
何良俊, 『四友齋叢說』  
解縉, 『文毅集』

### 2. 한국어 문헌

김홍대, 「외교와 미술: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대명 외교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미술사논단』 45, 2017, pp. 79-99.  
서윤정, 「조선후기 외교 선물로 전해진 청과 서양의 예술과 물질문화: 정조대 후기 사행을 중심으로」, 『미술사학보』 53, 2019, pp. 123-150.  
윤승희, 「조선 건국 초 왕자의 明 사행과 그 정치적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107, 2023, pp. 263-287.  
임준철, 「조선 최초의 북경 使行詩, 張子忠의 『判書公朝天日記』 연구」, 『한국시가연구』 34, 2013, pp. 251-285.  
이옥지, 「1406~1408년 티베트 승려 哈立麻의 중국 방문과 조선」, 『명청사연구』 63, 2025, pp. 31-60.  
조혜미, 「『諸佛世尊如來菩薩尊者名稱歌曲』 變相版畫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21.  
최소영, 「永樂帝의 티베트인 宦官 侯顯(1365-1438)의 위장(烏思藏) 使行 연구」, 『中國史研究』 140, 2022, pp. 99-136.  
홍선표, 『한국회화통사 2: 고려 회화』, 한국미술연구소 CAS, 2022.

### 3. 동양어 문헌

- 甲央·王明星 主編, 『寶藏: 中國西藏曆史文物』, 北京: 朝華出版社, 2000.
- 藍御菁, 「《明內府騎虞圖》之研究」, 『書畫藝術學刊』 2009年 第6期.
- 羅文華, 「明大寶法王建普度大齋長卷」, 『中國藏學』 1995年 第3期.
- 賴毓芝, 『跨界的中國美術史』, 杭州: 浙江大學出版社, 2022.
- 李若晴, 『玉堂遺音: 明初翰苑繪畫的修辭策略』, 杭州: 中國美術學院出版社, 2012.
- 遼寧省博物館 編, 『遼寧省博物館』, 北京: 文物出版社, 1983.
- 趙晶, 「撒馬兒罕的禮物: 周全〈獅子圖〉研究-兼談中國古代獅子圖像中的誤解問題」, 『故宮博物院院刊』 2020年 第11期.
- 塚本麿充, 「中國・宮廷コレクションと東アジア文化の生成—南宋復興秘閣の成立と江南佛教世界の變容」, 江川溫 外 3人 共編, 『東西中世のさまざまな地平—フランスと日本の交差するまなざし』, 東京: 知泉書館, 2020.

### 4. 서양어 문헌

- Berger, Patricia. "Miracles in Nanjing: An Imperial Record of the Fifth Karmapa's Visit to the Chinese Capital." In *Cultural Intersections in Later Chinese Buddhism*, edited by Marsha Weidner.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1.
- Campbell, Aurelia. *What the Emperor Built: Architecture and Empire in the Early Ming*.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20.
- Ching, Dora C. Y. "Tibetan Buddhism and the Creation of the Ming Imperial Image." In *Culture, Courtiers, and Competition*, edited by David M. Robinson. Cambridge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8.
- Duyvendak, J. J. L. "The True Dates of the Chinese Maritime Expeditions in the Early Fifteenth Century." *T'oung Pao* 34 (1939): 341-413.
- Levathes, Louise. *When China Ruled the Seas: The Treasure Fleet of the Dragon Throne, 1405-1433*.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Lewis, Mark Edward. *The Early Chinese Empires: Qin and Han*. Cambridge, MA and London: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 Lin, Lina. "Gifts of Good Fortune and Praise-Songs for Peace: Images of Auspicious Portents and Panegyrics from the Yongle Period." In *Ming China: Courts and Contacts 1400-1450*, edited by Craig Clunas, Jessica Harrison-Hall, and Y. P. Luk. London: British Museum, 2016.
- Liscomb, Kathlyn. "The Eight Views of Beijing: Politics in Literati Art." *Artibus Asiae* 49 (1988-1989): 127-152.
- \_\_\_\_\_. "Foregrounding the Symbiosis of Power: A Rhetorical Strategy in Some Chinese Commemorative Art." *Art History* 25 (2002): 135-161.

- \_\_\_\_\_. "How the Giraffe Became a Qilin: Intercultural Signification." In *The Zoomorphic Imagination in Chinese Art and Culture*, edited by Jerome Silbergeld and Eugene Y. Wang.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6.
- Little, Stephen, and Shawn Eichman. *Taoism and the Arts of China*. Chicago: Art Institute of Chicago;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0.
- Sen, Tansen. "Diplomacy, Trade and the Quest for the Buddha's Tooth: The Yongle Emperor and Ming China's South Asian Frontier." In *Ming China: Courts and Contacts 1400-1450*. London: British Museum Press, 2016.
- Sturman, Peter C. "Cranes above Kaifeng: The Auspicious Image at the Court of Huizong." *Ars Orientalis* 20 (1990): 33-68.
- Wang, Cheng-hua. "Material Culture and Emperorhip: The Shaping of Imperial Roles at the Court of Xuanzong (r. 1426-35)." Ph.D.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1998.
- Watt, James C. Y., and Denise Patry Leidy eds. *Defining Yongle: Imperial Art in Early Fifteenth-Century China*.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2005.
- Whitfield, Roderick. "Ming Pyrotechnics: The Xiaoling and the Linggusi in the 1407 Scroll." *Arts of Asia* 44 (2014): 71-81.
- Wu, Hung. *The Wu Liang Shrine: The Ideology of Early Chinese Pictorial Ar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9.

## References

### 1. Primary Sources

- Chang, Chach'ung. *Pansǒgong choch'ǒn ilgi*  
*Da Ming Taizong huangdi yuzhi ji*
- Deng Chun. *Huaji*
- He Liangjun. *Siyouzai congshui*
- Jin Youzi. *Jin Wenjing ji*
- Ma Huan. *Yingya shenglan*  
*Ming Taizong shilu*  
*Sejong sillok*  
*Shijian jigultie xuj*  
*Taizong Wenhuangdi shilu*  
*Tongmunsǒn*

Xia Yuanji. *Zhongjing ji*

Xie Jin. *Wenyi ji*

Yang Rong. *Wenmin ji*

## 2. Secondary Sources in Korean

Cho, Hye-mi (Cho, Hyemi). “*Zhufo Shizun Rulai Pusa Zunzhe Mingcheng Gequ* pyönsang panhwa yön'gu.” M.A.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21.

Ch'oe, Soyöng (Choi, Soyoung). “Yöngnakche üi T'ibet'ün hwan'gwan Ho Hyön (1365~1438) üi witch'ang sahaeng yön'gu.” *Chungguksa yön'gu* 140 (2022): 99-136.

Hong, Sönp'yo (Sun Pyo Hong). *Han'guk hoehwa t'ongsa 2: Koryö hoehwa*. Söul: Han'guk misul yön'guso (CAS), 2022.

I, Okchi (Lee, Okji). “1406-1408 nyön T'ibet'ü süngnyö Hamnimma üi Chungguk pangmun kwa Chosön.” *Myöngch'öngsa yön'gu* 63 (2025): 31-60.

Im, Chunch'öl (Lim, Jun-chul). “Chosön ch'oech'o üi Pukkyöng sahaengsi (sahaengsi), Chang Chach'ung üi *Pansöggong Choch'ön ilgi* yön'gu.” *Han'guk siga yön'gu* 34 (2013): 251-285.

Kim, Hongdae. “Oegyo wa misul: *Chosön wangjo silloke* kirok toen Tae Myöng oegyo kwallyön charyo rül chungsim üro.” *Misulsa nondan* 45 (2017): 79-99.

Sö, Yunjöng (Seo, Yoonjung). “Chosön hugi oegyo sönmul ro chönhae chin Ch'öng kwa Söyang üi yesul kwa muljil munhwa: Chöngjo dae hugi saheng ül chungsim üro.” *Misulsa hakpo* 53 (2019): 123-150.

Yun, Süngüi (Yun, Seunghye). “Chosön kön'guk ch'o wangja üi Myöng sahaeng kwa kü chöngch'i chök üimi.” *Chosön sidae sahakpo* 107 (2023): 263-287.

## 3. Secondary Sources in East Asian

Jia, Yang, and Mingxing Wang, eds. *Baozang: Zhongguo Xizang lishi wenwu*. Beijing: Chaohua chubanshe, 2000.

Lai, Yuzhi. “Mingren huayuan shi tu kao.” In *Kuajie de Zhongguo Meishushi*. Hangzhou: Zhejiang daxue chubanshe, 2022.

Lan, Yujing. “*Ming neifu Zouyu tu zhi yanjiu*.” *Shuhua yishu xuekan* 6 (2009): 441-464.

Li, Ruoqing. *Yutang yinyin: Ming chu Hanyuan huihua de xiuci celue*. Hangzhou: Zhongguo meishu xueyuan chubanshe, 2012.

Liaoning sheng bowuguan, ed. *Liaoning sheng bowuguan*. Beijing: Wenwu chubanshe, 1983.

Luo, Wenhua. “Ming Dabao Fawang jian pudu dazhai changjuan.” *Zhongguo zangxue* 3 (1995): 89-97.

Tsukamoto, Maromitsu. “Chügoku: kyütei korekushon to Higashi ajia bunka no seisei- Nansö fukkö Hikaku no seiritsu to Kōnan bukkyö sekai no hen'yö.” In *Tōzai chūsei no samazama na chihei:*

*Furansu to Nihon no kōsarū manazashi*, edited by Egawa Atsushi et al. Tokyo: Chisen shokan, 2020.

Zhao, Jing. "Samarkand de liwu: Zhou Quan 'Shizi tu' yanjiu—jian tan Zhongguo gudai shizi tuxiang zhong de wujie wenti." *Gugong bowuyuan yuankan* 11 (2020): 91-106.

#### 4. Secondary Sources in English

Berger, Patricia. "Miracles in Nanjing: An Imperial Record of the Fifth Karmapa's Visit to the Chinese Capital." In *Cultural Intersections in Later Chinese Buddhism*, edited by Marsha Weidner.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1.

Campbell, Aurelia. *What the Emperor Built: Architecture and Empire in the Early Ming*.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20.

Ching, Dora C. Y. "Tibetan Buddhism and the Creation of the Ming Imperial Image." In *Culture, Courtiers, and Competition*, edited by David M. Robinson. Cambridge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8.

Duyvendak, J. J. L. "The True Dates of the Chinese Maritime Expeditions in the Early Fifteenth Century." *T'oung Pao* 34 (1939): 341-413.

Levathes, Louise. *When China Ruled the Seas: The Treasure Fleet of the Dragon Throne, 1405-1433*.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Lewis, Mark Edward. *The Early Chinese Empires: Qin and Han*. Cambridge, MA and London: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Lin, Lina. "Gifts of Good Fortune and Praise-Songs for Peace: Images of Auspicious Portents and Panegyrics from the Yongle Period." In *Ming China: Courts and Contacts 1400-1450*, edited by Craig Clunas, Jessica Harrison-Hall, and Y. P. Luk. London: The British Museum, 2016.

Liscomb, Kathlyn. "The Eight Views of Beijing: Politics in Literati Art." *Artibus Asiae* 49 (1988-1989): 127-152.

\_\_\_\_\_. "Foregrounding the Symbiosis of Power: A Rhetorical Strategy in Some Chinese Commemorative Art." *Art History* 25 (2002): 135-161.

\_\_\_\_\_. "How the Giraffe Became a Qilin: Intercultural Signification." In *The Zoomorphic Imagination in Chinese Art and Culture*, edited by Jerome Silbergeld and Eugene Y. Wang.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6.

Little, Stephen, and Shawn Eichman. *Taoism and the Arts of China*. Chicago: Art Institute of Chicago;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0.

Sen, Tansen. "Diplomacy, Trade and the Quest for the Buddha's Tooth: The Yongle Emperor and Ming China's South Asian Frontier." In *Ming China: Courts and Contacts 1400-1450*. London: The British Museum Press, 2016.

Sturman, Peter C. "Cranes above Kaifeng: The Auspicious Image at the Court of Huizong." *Ars Orientalis*

20 (1990): 33-68.

Wang, Cheng-hua, "Material Culture and Emperorhip: The Shaping of Imperial Roles at the Court of Xuanzong (r. 1426-35)." Ph.D.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1998.

Watt, James C. Y., and Denise Patry Leidy eds. *Defining Yongle: Imperial Art in Early Fifteenth-Century China*.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2005.

Whitfield, Roderick, "Ming Pyrotechnics: The Xiaoling and the Linggusi in the 1407 Scroll." *Arts of Asia* 44 (2014): 71-81.

Wu, Hung. *The Wu Liang Shrine: The Ideology of Early Chinese Pictorial Ar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9.

## 국문초록

본 논문은 1419년 명나라의 영락제(永樂帝, 재위 1403~1424)가 북경을 방문한 조선의 경녕군(敬寧君, 1395~1458) 일행에게 하사한 그림들의 내용과 제작 배경을 규명한 연구이다. 경녕군 일행이 받은 그림들은 이국적인 동물들과 불교적 이적(異蹟)을 묘사한 작품들로, 모두 1419년 여름에 명나라에서 발생한 상서(祥瑞) 현상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동물 그림은 정화(鄭和, 1371~1433)의 제5차 원정을 통해 중국에 유입된 기린, 사자, 얼룩말을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이 그림들은 북경 천도를 앞두고 전세계의 진귀한 동물들이 황제의 궁정에 집결된 모습을 통해 새 수도를 신성한 수도로 표상하려는 영락제의 정치적 기획과 관련되어 있었다. 아울러 불교적 이적을 그린 그림들은 1419년 여름에 영락제가 『제불세존여래보살존자명칭가곡(諸佛世尊如來菩薩尊者名稱歌曲)』을 남경의 대보은사(大報恩寺)와 오대산(五臺山)의 현통사(顯通寺)에 반포한 직후, 불보살과 보탑 등이 현현(顯現)한 모습을 시각화한 작품이었다. 이를 통해 영락제는 자신을 불법(佛法)을 수호하고 이적을 일으키는 전륜성왕(轉輪聖王)적 군주로 표상하고자 했다. 이러한 그림들의 하사는 조선의 태종(太宗, 재위 1401~1418)이 왕자인 경녕군을 사행의 대표로 보낸 상황과 관련된다. 또한 사신단이 자금성에서 상서를 관람한 뒤 그림을 하사받은 과정은 영락 연간에 황제가 관료들과 함께 상서를 기념한 방식이 대외적으로 확장된 사례로 해석된다.

## Abstract

# Beyond the Narrative of Legitimacy: The Political Significance of Yongle's 1419 Gift of Paintings to Chosŏn

Hwang, Hyeji\*

This study examines the content and production context of the five paintings presented in 1419 by the Yongle Emperor (永樂帝, r. 1403~1424) to the kings of Chosŏn. The works depict exotic animals such as the giraffe, lion, and zebra, as well as miraculous Buddhist manifestations at sites later identified as the Dabao'en Monastery (大報恩寺) in Nanjing and the Xiantong Monastery (顯通寺) on Mount Wutai. While previous scholarship has interpreted Yongle-era paintings of auspicious signs (祥瑞) largely as tools for legitimizing the emperor's rule after the Jingnan (靖難) campaign, this study reconsiders their significance by focusing on the concentrated production of visual representations of auspicious portents in 1419.

The animal paintings draw on real creatures brought to the Ming court through Zheng He's (鄭和, 1371~1433) maritime expeditions and were presented as heavenly portents whose appearance in Beijing helped sacralize the nearly completed new capital. The Buddhist paintings, created in response to signs reported after the dissemination of the *Songs for the Names of Various Buddhas and Bodhisattvas* (諸佛世尊如來菩薩尊者名稱歌曲), visualized miraculous events that shaped the emperor's image as a ruler endowed with extraordinary spiritual authority comparable to a universal sovereign (*cakravartin*).

Placed within the political and religious context of 1419, the presentation of these paintings to the Chosŏn mission was closely connected to King T'aejong's (太宗, r. 1401~1418) decision to dispatch his son, Kyŏngnyŏng-gun (敬寧君, 1395~1458), as an envoy of exceptional status. This context helps explain why the delegation formally viewed auspicious portents before receiving the paintings, a procedure that reveals how the Yongle court extended its commemorative practices into the sphere of foreign diplomacy.

---

\* Ph.D. Student,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